



헤센대공가의 비극

엘

소개글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딸인 앨리스 대공비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

- 1.지명과 이름을 잘못 읽은것이 있습니다.
- 2.오타 있습니다.
- 3.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도 있습니다.

목차

1	헤센 대공가의 비극...1.엘리자베트 대공녀의 죽음	4
2	헤센 대공가의 비극...2.프리드리히의 죽음	12
3	헤센 대공가의 비극...3. 마리와 앨리스 대공비의 죽음	15
4	헤센대공가의 비극...4.러시아 황실가족의 죽음	23
5	헤센 대공가의 비극...5.1937년의 비행기 추락사고	33
6	헤센 대공가의 비극...6.요한나 대공녀의 죽음	40
7	헤센대공가의 비극...번외편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의 죽음	45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음냐..오랫만에 헤센 대공가 이야기를 좀 써볼려고 했는데 뭐 여러번 재탕해먹었던거라 뭘해야될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 가문이 비극이 많은 가문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리즈로 써볼까해서 말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제맘대로 하고프다죠..--;;
아무리봐도 헤센대공가의 비극의 정점은 알렉산드라 황후의 죽음과 1937년 대공가족 대부분이 죽은 비행기 사고일듯해요.

헤센 대공가의 비극...1.엘리자베트 대공녀의 죽음



헤센의 엘리자베트 대공녀

Princess Elisabeth of Hesse and by Rhine

(Prinzessin Elisabeth Marie Alice Viktoria von Hessen und bei Rhein)

(11 March 1895 □ 6 November 1903)

헤센의 엘리자베트 마리 알리체 빅토리아 대공녀는 헤센의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그의 첫번째 부인인 작센-코부르크-고타의 빅토리아 멜리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트라는 이름은 증조할머니의 이름에서 따온것으로, 역시 같은 사람에게서 이름을 따온 고모 엘리자베트(헤센의 엘리자베트,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표도로브나 대공비)처럼 엘라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고모랑 안헛갈리게 리틀 엘라 정도로 불렸겠죠.)



헤센의 엘리자베트 대공녀

이 대공녀의 증조할머니중 한명이 바로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사실 부모인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빅토리아 멜리타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와 친손녀로 둘은 여왕의 뜻에따라 결혼한것이었죠.

엘리자베트는 이 증조할머니를 "그래니 그랜"으로 불렀으며,빅토리아 여왕 이 예쁜 증손녀를 끔찍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니그랜"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있는 엘리자베트
참고로 왼쪽에 있는 소녀는 후에 스페인 왕비가 되는 에나입니다.

엘리자베트의 부모인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빅토리아 멜리타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결혼했지만, 둘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상대였고 둘의 결혼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둘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소식은 전 유럽에 퍼졌으며 빅토리아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여왕은 둘이 불행하다는 소식에 "둘의 결혼은 내가 중매한 것이다. 내 다시는 중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왕님 취미생활 접으셨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둘이 이혼하겠다는 청에 완강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들에게 여왕의 말은 절대적이었으며 여왕의 허락이 없는한 둘의 이혼은 불가능했죠. 빅토리아 여왕이 이혼을 반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 꿈쩍히 사랑하던 증손녀 엘리자베트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족들은 이혼하느니 차라리 죽는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혼하는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부모가 이혼한 왕녀로 사는것은 엘리자베트에게 큰 짐이 될수 있다고 빅토리아 여왕은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증손녀에게 부모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없다는것이었죠.



엘리자베트의 부모

헤센의 에른스트 루드비히 대공과 작센-코부르크-고타의 빅토리아 멜리타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죽은후 상황은 돌변합니다. 여왕이 죽은후 엘리자베트의 부모는 이혼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르니와의 삶을 견디지 못했던 더키는 이혼을 요구하죠. 둘의 이혼에 대부분 왕족들은 더きを 비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녀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때문이였죠. 하지만 더키의 남편이었던 에르니는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절 미치게 만들고,더きを 죽여가게 만들던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것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에르니의 누나였던 빅토리아는 "둘이 이혼하는 편이 최선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엘리자베트에게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이었으며, 특히 자신에게 잘있으라고 키스하고 떠나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는 아버지 에르니를 더 따랐었는데, 에르니는 부인인 더키에게는 무관심했지만, 딸인 엘리자베트는 매우 열광적으로 사랑했었기때문이였죠. (이것은 더키에게는 큰 좌절이었죠. 스물살도 안된나이에 엄마가 된 더키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딸에게 열광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남편 곁에 있어야했으니까요. 게다가 딸을 사랑했지만, 딸은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으니 말입니다)

부모가 이혼한후 엘리자베트는 반년씩 엄마 아빠와 각각 지내게 됩니다만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에 엄마

에게 가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더키에게 가야했는데 엘리자베트가 가기 싫다고 숨었다고 합니다. 에르니가 딸을 달래면서 엄마도 널 사랑한단다..라고 했을때 엘리자베트는 "엄마는 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빠는 널 사랑하잖아요."라고 했습니다.(여기서 엄마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아빠는 행동으로 널 사랑하는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각각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엘리자베트

부모가 이혼한지 2년후인 1903년 엘리자베트는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1903년 10월 헤센 대공가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트의 사촌인 바텐베르크의 앨리스의 결혼식이었죠. 앨리스는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왕자와 결혼했으며, 이때 유럽의 많은 왕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특히 헤센 대공가 사람들 전부 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엘리자베트는 좋아하는 러시아 사촌들과 다시 만납니다. (앨리스의 결혼식은 1차대전전 유럽의 왕족들이 대거 모인 마지막 가족행사였다고 합니다.)

앨리스의 결혼식후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딸을 데리고 짜르 가족과 함께 폴란드의 사냥터로 갑니다. 엘리자베트는 이곳에서 러시아 사촌들과 즐겁게 놀죠. 하지만 사촌들과 놀고난 다음날 엘리자베트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목이 붓고 열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러시아 황실 주치의는 처음에는 그냥 다른 황녀들처럼 잠깐 아픈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황실가족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자 놀라서 바르샤바의 전문의를 불렀습니다만, 엘리자베트의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하죠.

의사들은 황후에게 아이 엄마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충고합니다만, 처음에 황후는 이를 주저합니다. 황후는 오빠와 이

훈한 더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더키에게 전보를 보냅니다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더키는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기차역으로 갔지만, 기차역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엘리자베트의 상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악화되었기에, 황제를 암살하려고 놔뒀던 음식을 대신먹어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질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엘리자베트의 병이 아마 급성 장티푸스로 추정하며 단순한 장티푸스와 달리 치명적이어서 손쓸수 없었을것이라 추측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촌들인 올가와 타니아나와 함께 있는 엘리자베트

엘리자베트의 죽음은 엘리자베트의 부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딸을 끔찍히 사랑했던 에르니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쉰로스 볼프스가르텐에 작은 인형의 집을 만들어줄 정도였죠. 이곳은 동화속에 나올만한 작은 집으로 엘리자베트의 소꿉놀이를 위한 모든것이 갖춰진 예쁜 집이었습니다.(현재도 볼프스가르텐에 있습니다.-혹..일년에3일개방하는 쉰로스 볼프스가르텐..ㅠ.ㅠ)

이런 그에게 딸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고,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역시 동화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장례식때 검은색 대신 모든것을 흰색으로 바꾸었으며,딸의 관은 네마리의 백마가 끄는 수레에 실었고, 딸의 관주변에는 꽃으로 장식해서 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딸의 묘는 날개를 펼친 천사가 무덤을 지켜서 보호하는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에르니는 딸이 죽은지 30년 후에도 딸에 대해서 그애는 "내 삶의 햇살(suhshine)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헤센의 엘리자베트 대공녀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사진출처
위키 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음냐 시간순차로 하는편이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사람은 엘리스 대공비의 둘째아들인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티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아들은 빅토리아 여왕 가계의 유전병인 혈우병환자였죠.

혈우병때문에 일찍 사망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가계 혈우병은 아마 여왕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왜냐면 혈우병 환자의 약 30%가 가족력없는 돌연변이로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재미난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혈우병 가계도를 표시할때 보면, 혈우병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의 큰딸인 빅키와 베아트리스 공주의 막내아들인 모리스입니다. 모리스를 혈우병환자로 헷갈리는것은 그가 전쟁중에 과다출혈로 죽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우병이랑 관계가 없는데, 모리스의 형이자 혈우병 환자였던 레오폴드는 전선에 가지 않았거든요. 만약 모리스가 혈우병 환자였다면 그 역시 전선으로 가지는 않았을겁니다. 사망원인은 포탄의 파편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큰딸인 빅키는 혈우병 보인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이유는 아마도 둘째아들인 하인리히의 큰아들이 혈우병환자라서 그런듯합니다. 하인리히의 부인이 보인자여서 아들이 혈우병환자로 태어난것일뿐이라죠. 디프테리아로 죽은 발데마르에 대해서 그가 혈우병 환자라서 그렇다는 --;;소리를 봤는데, 발데마르가 죽었던때와 비슷한시기에 빅키의 여동생인 엘리스 대공비와 그 딸인 마리 대공녀 역시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습니다. 디프테리아가 가벼운병이 아니더라구요.

헤센 대공가의 비극...2.프리드리히의 죽음

<http://en.wikipedia.org/wiki/File:Frittie.jpg>

헤센의 프리드리히

헤센의 대공 루드비히4세와 그의 부인인 영국의 엘리스 공주의 둘째아들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

Prince Friedrich of Hesse and by Rhine

(Friedrich Wilhelm August Victor Leopold Ludwig)

(October 7, 1870 □ May 29, 1873)

헤센의 프리드리히는 헤센의 대공이었던 루드비히4세와 그의 부인이자 빅토리아여왕의 둘째딸이었던 엘리스 대공비의 둘째아들이었습니다.

프리티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아이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던 헤센 대공부부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프리티가 만 세살이 되기전 혈우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1873년 2월 프리티는 놀다가 귀를 베었는데 피가 3일간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아이가 혈우병이라는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프리드리히의 부모
헤센의 대공 루드비히4세와 그의 부인인 앨리스 대공비
약혼때쯤

프리티의 대부이자 빅토리아 여왕의 막내아들이었던 레오폴드 왕자 역시 혈우병환자였지만,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과보호아래 지내야했죠.) 이때문에 프리티도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긴했지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프리티는 사망합니다.

프리티는 형인 에르니와 함께 어머니의 침실에서 숨박꼭질을 하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르니와 프리티는 서로 쫓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에르니가 창문을 통해서 동생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앨리스 대공비가 에르니를 창문에서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프리티가 형을 가까이 보려고 열린 창문 근처에 있는 의자에 올라갔다가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리티는 바로 죽지 않았습시다만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피가 멎었다면 살았겠지만, 혈우병 환자라 출혈이 멎지 않았겠죠.)

이 사건은 헤센 대공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특히 프리티가 사고를 당할때 곁에 있었던 어머니 앨리스 대공비와 형인 에르니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에르니는 어머니에게 프리티처럼 홀로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정도였습니다. 앨리스 대공비의 충격은 더 컸는데 대공비는 프리티가 죽은것이 자신이 종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공비는 자주 아들의 묘에 가서 기도했으며 아들의 기일을 늘 챙겼습니다.

1875년경의 앨리스 대공비

원래 앨리스 대공비가 사진찍을때 표정이 밝은 표정은 아니긴했지만, 저는 아들이 죽은후로는 저렇게 더 음울한 표정이 된듯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사진출처

위키 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헤센 대공가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앨리스 대공비의 죽음에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죠.

왜냐면, 앨리스 대공비의 죽음으로 대공가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로 접어들거든요.

특히 앨리스 대공비가 써니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밝고 명랑했던 알릭스는 어머니와 동생이 죽은후 우울해했고 조용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황후감으로는 참 안 어울리는 성격이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주들이었던 헤센 대공가의 아이들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의 비극은 이제 시작된것일뿐이었습니다. 휴고비커스는 헤센의 빅토리아에 대해서 매우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며 삶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삶은 이런 빅토리아의 의지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야했다라고 말합니다.

전 처음에 순전히 헤센의 빅토리아의 딸인 루이즈 왕비에 관심이 있어서 헤센 대공가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대공가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헤센의 빅토리아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아하는 왕족이 루이즈 왕비였지만, 지금은 헤센의 빅토리아와 루이즈 왕비죠.

헤센의 빅토리아는 독립적이었고, 강인한 성격에 좋은 부인에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많은 비극을 봐야했지만 그것때문에 인생에 대해 절망하지 않았고, 늘 긍정적으로 살았으며 다른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알면알수록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럼 휴고 비커스가 헤센의 빅토리아(앨리스 대공비의 장녀)의 어린시절을 끝내게 만든 사건..이라고 표현한 대공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헤센 대공가의 비극....3.마리와 앨리스 대공비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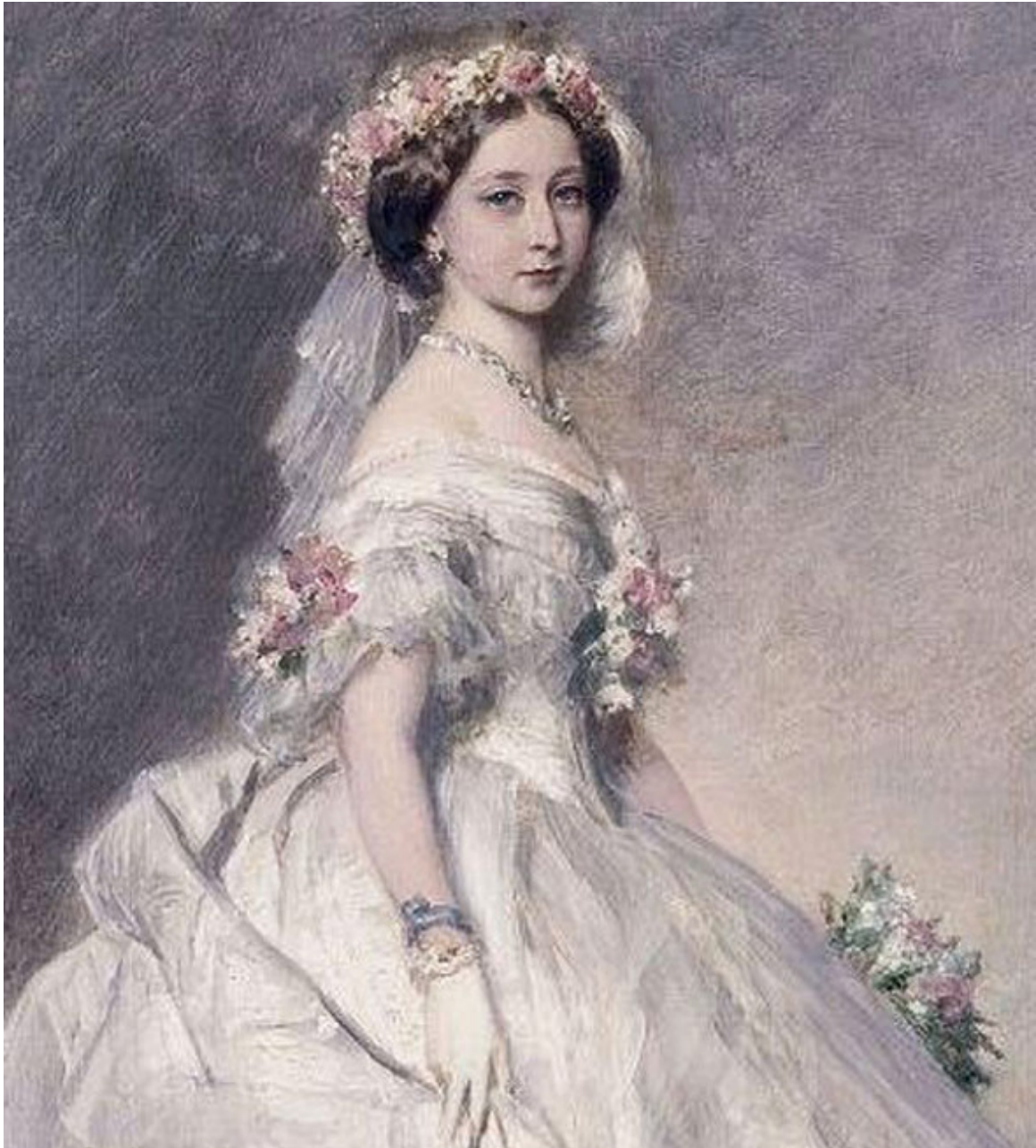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딸이었던 앨리스 공주는 부모의 뜻에 따라 헤센 대공의 추정상속자인 루드비히와 결혼합니다.

그는 매우 잘 생긴 외모로 빅토리아 여왕을 흡족하게 했으며 앨버트공 역시 마음에 들어합니다. 앨리스 공주 역시 잘 생긴 왕자님에 반했고, 루드비히 역시 대 가문인 영국공주와 결혼하는것이 괜찮은 선택이었죠.



앨리스와 루드비히

둘의 결혼은 행복하게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약혼기간동안 앨리스의 아버지 앨버트공이 사망했기때문이였죠. 남편의 죽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은 거의 아무일도 못했으며, 앨리스가 잠도 제대로 못자는 어머니를 돌보고, 다시 국정을 돌볼수 있도록 곁에 있어야했습니다. 여왕은 남편을 잃고나서는 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기에 앨리스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남편인 앨버트공이 앨리스의 결혼을 결정했기에 죽은 남편의 뜻에 따라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원저에서 열린 앨리스 공주의 결혼식은 결혼식이라기 보다는 장례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왕은 상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앨리스의 동생들은 또 가족이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결혼식중간에 울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왕은 앨리스가 결혼한 후에도 자신과 함께 있길 원했고, 앨리스는 잠시 다름슈타트로 갔다가 다시 남편과 함께 어머니 곁에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앨리스 공주
빈터할터의 그림일겁니다.==

루드비히4세와 앨리스 공주는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남편이 학문에 열중하지 못하는것을 이해 못했으며, 루드비히4세는 아내가 자선사업에 열성을 쏟는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앨리스 공주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평행선과 같답니다. 서로 만날일이 없겠죠"라고 언급할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둘을 부부로 남게 해준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대공부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죠. 이때문에 헤센 대공가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슬픔으로 끝납니다.전조는 바로 프리드리히의 죽음이었습니 다. 그리고 프리티가 죽은 5년후 슬픔이 찾아오죠.

아이들과 함께 있는 헤센 대공 부부
대공이 안고 있는 아이가 마리입니다.
아이들은 마리빠고 왼쪽에서 엘리자베트 에른스트 루드비히,알릭스,이레네,빅토리아입니다.

1878년 11월 5일 저녁 헤센 대공가의 장녀인 빅토리아는 목이 안 좋았지만 그다지 심각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날 잠자리에 들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빅토리아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새벽에는 넷째딸인 알릭스가 디프테리아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날 오후에는 막내딸인 마리가 디프테리아로 진단받습니다. 이때 마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죠. 다음날에는 셋째딸인 이레네가 감염되었고, 11월 14일에는 아들인 에른스트 루드비히(에르니)와 아이들의 아버지인 헤센의 대공도 감염됩니다. 가족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앨리스 대공비와 둘째딸인 엘라 밖에 없었죠. 대공비는 엘라를 서둘러 할머니가 사는 궁으로 보냈고, 의사들과 함께 가족 모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1월 15일 밤에 마리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고 결국 11월 16일 아침에 마리는 사망합니다. 남편마저 아팠기에 앨리스 대공비는 딸의 죽음을 혼자 봐야했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들은 아팠고 앨리스는 힘을 내서 아이들과 남편을 돌봐야했죠.



헤센의 대공녀 마리

마리가 죽은 11월 16일은 수십년후 헤센대공가의 비극이 재현되는 날입니다.

앨리스 대공비는 12월까지도 아이들에게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시다만. 결국 아이들에게 마리의 죽음을 이야기 해야했습니다.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특히 동생 프리티가 죽을때 곁에 있어서 충격받았던 에르니의 충격은 더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기에, 어머니인 앨리스 대공비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감염의 위험에도 입을 맞추면서 편안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앨리스 대공비는 가족을 열심히 돌봤고, 매우 지쳤지만 영국으로 가던 언니 빅토리아를 만났서 전해준 편지에는 "다시 힘을 내려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 대공비는 결국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고 12월 14일날 사망함

니다. 앨리스 대공비의 마지막 말은 "From Friday to Saturday -- four weeks -- May -- dear Papa"였습니다. 메이는 딸 마리의 애칭이었으며, 12월 14일은 앨리스 대공비의 아버지인 앨버트공의 기일이었습니다. 앨리스 대공비의 딸인 빅토리아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살고싶은 기력이 없으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앨리스 대공비

앨리스 대공비의 죽음은 헤센 대공가와 영국 왕실 모두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딸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와 친했던 올케인 웨일즈 공비 알렉산드라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여왕앞에서 "차라리 제가 죽었다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오빠인 웨일즈공 역시 가장 친했던 여동생의 죽음에 슬퍼했죠. 하지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언니인 빅토리아였습니다. 빅키는 어머니에게 무려 39장의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여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수는 없었습니다. 전염병이었기에 빅키의 시아버지인 빌헬름1세는 며느리가 장례식에 가는것을 금지했기때문이였죠.



앨리스 대공비와 남편 루드비히4세 그리고 어려서 죽은 두 아이인 마리와 프리드리히가 묻혀있는 영묘, 장미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로젠회에 (...맞게 읽은것인지는..)에 묻혀있습니다. 이곳은 다름슈타트에 있는 공원으로 앨리스의 아들인 에른스트 루드비히가 부모를 위해 이 영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로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앞쪽 포스트인 한국에서 찾아보는 다름슈타트 관광정보...3.로젠회(Rosenh□he)

<http://blog.daum.net/elara1020/8464330> 를 참조해주세요

앨리스 대공비가 죽은후,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외손주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와 같은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의 교육등에 대한 보고서를 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직접 돌볼수 없었기에 대공가의 장녀인 빅토리아가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봤으며, 군주였던 아버지를 보좌해서 궁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외손녀를 위해 딸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외손녀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관계는 후에 여왕과 헤센의 빅토리아 사이가 할머니와 외손녀관계라기 보다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죽은후 상복을 입고 외할머니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앞쪽에 앉아있는 두 소녀는 각각 이레네와 알릭스입니다.

서있는 세 사람은 엘라,에르니,빅토리아입니다.

후에 러시아의 황후가 되는 알릭스는 어머니가 죽기전에는 밝고 명랑한 소녀였는데, 어머니가 죽은후에는 예민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그림출처

위키 미디어 커먼스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이제 유명한 러시아 황실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중 두명이었던 엘라와 알릭스는 러시아로 시집갑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은 엘라였는데 자신의 오촌이자 신앙심 깊고 잘생겼던 세르게이 대공과 결혼합니다. 둘의 약혼은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없이 이루어져서 여왕이 살짝 빼졌습니다.--;; 여왕은 러시아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것과 외손녀가 러시아로 시집가면 영국으로 오기 힘든것에 반대했던것이죠.

황홀한 분위기로 사람을 사로 잡았던 엘라는 수많은 청혼자가 있었지만 거절하고 러시아로 시집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독일의 빌헬름 2세죠. 그의 책상위에 엘라의 사진이 놓여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엘라가 러시아로 시집간후, 러시아의 황태자인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숙모의 동생이자 육촌관계였던 알릭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도 빅토리아 여왕이 살짝 빼지는데, 여왕의 손자였던 웨일즈의 앨버트 빅터 왕자가 알릭스를 좋아했고, 여왕 역시 알릭스가 이 손자와 결혼하길 바랬던것이죠. 하지만 알릭스는 오빠가 결혼하는것을 계기로 러시아 황태자와 약혼합니다. 물론 이땐 빅토리아 여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만, 뭐 대충 약혼하기로 하고 여왕한테 허락말으려 간것같다죠.-0-;;

헤센대공가의 비극 ...4.러시아 황실 가족의 죽음

러시아로 시집간 두 헤센 대공녀는 러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엘라의 결혼생활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이가 없었던 엘라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했기에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조카들에게 열광하는 세르게이의 모습이나, 친척중 누군가 엘라에 대해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것이다"라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마 세르게이쪽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알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척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만, 오직 양녀였던 마리아 파블로브나 여대공만이 엘라에 대해서 차가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살짝 모순되는것이 마리아의 동생인 드미트리 대공은 엘라를 무척이나 따랐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마리아가 좀 "이기적"이라는 평가라서 말입니다.^*)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과 엘리자베타 표도로브나 대공비

엘라의 결혼생활은 불행하게 끝납니다. 엘라의 남편이었던 세르게이 대공은 모스크바의 통치자였는데 그는 매우 인기가 없었으며 아버지 알렉산드르2세처럼 테러의 위협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처럼 폭탄테러로 사망합니다. 엘라는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때 바로 달려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세르게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화낼거야"라면서 주변의 피를 옷으로 닦았으며,집으로 돌아와 입양한 두 아이들을 껴안고 "세르게이가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었지"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적은 마리야는 그때 양어머니의 소매에 피가 묻어있는것을 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반항아 양딸을 시집보내고, 착한 양아들을 군대에 보낸후 엘라는 정교회 수녀가 되었고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수녀로 살아갑니다.



테러후의 세르게이가 탔던 마차의 모습



반면 알릭스는 매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합니다. 니콜라이2세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으며, 아이들도 사랑했죠. 하지만 알릭스는 러시아 궁정에 적응하는데 실패합니다. 수줍음 많고 빅토리아식 도덕률에 충실하던 알릭스에게 러시아 궁정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게다가 알렉산드르3세가 결혼전 사망했기에 니콜라이2세는 즉위하자마자 결혼했는데 궁정에서는 이에 대해 "관이 지나간후 황후가 왔다"라고 속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계자를 낳아야했는데 딸만 내리 넷을 낳아서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은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혈우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후계자 문제는 여전히 불안했고 황후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이때문에 황후는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낮게 해주리라 확신했던 수도사 "라스푸틴"을 등용했고 짜르 부부는 그의 영향력아래 들게 됩니다.



알렉산드라 황후와 기다리고 기다렸던 후계자 알렉세이

알렉세이는 혈우병환자였고 아들이 태어났지만 후계자 문제가 딱히 바로 해결된것은 아니었죠.

라스푸틴은 짜르 부부와 나머지 황실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는데, 언니인 엘라 대공비마저도 라스푸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알릭스의 율케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대공비가 된 더키(빅토리아 멜리타)는 의사가 아닌 라스푸틴에 의존하는 황후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황후의 차가운 반응을 보았고, 아픈 아이를 의사에게 보여야지 왜 저런 사람에게 의존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라스푸틴

그가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라스푸틴이 알렉세이의 병을 완화시키는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짜르 부부는 그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알렉산드르2세의 개혁정치가 실패한후 러시아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했습니다. 알렉산드르2세는 입헌 군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그는 헌법을 승인하기 직전 폭탄테러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아들 알렉산드르3세는 아버지와 달리 보수주의자였으며, 아버지의 죽음이 자유주의

와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때문에 그는 할아버지 니콜라이1세 방식의 통치 스타일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았죠. 이 정책들은 러시아 사회를 잠시 지탱해주지만 불만은 쌓여갔으며, 결정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뒤 러시아 사회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결국 니콜라이2세는 헌법을 승인하는수 밖에 없었죠.

1차대전은 모든것을 바꿔 놓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었고, 수많은 난민과 포로, 탈영병등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들은 짜르를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의 지지를 받던 총 사령관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대공을 해임하고 니콜라이2세 스스로가 총사령관으로 전선으로 가면서 문제는 더 커집니다. 황제는 황후와 라스푸틴에게 정부를 맡겼고, 황후는 라스푸틴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라스푸틴이 전권을 장악합니다. 그의 행위를 이 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황실 가족들은 결국 그를 암살하기에 이르죠. 그의 암살에 가담한 사람은 엘라의 양아들이자 짜르의 사촌이었던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대공과 짜르의 조카 사위였던 펠릭스 유스포프공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의 죽음에 짜르 부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없어져서 안도했죠. 황후의 언니였던 빅토리아는 라스푸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후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던 이가 죽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실가족들 모두는 드미트리 대공과 유스포프 공을 사면해달라고 탄원을 했고 결국 짜르는 둘을 추방하는선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드미트리 파블로비치 대공과 부인 이리나 알렉산드로브나 공녀와 함께 있는 펠릭스 유스포프공
드미트리의 아버지인 파벨대공은 귀천상훈으로 러시아에서 추방당했고, 그는 누나와 함께 백부였던 세르게이 대공에게 입양됩니다. 누나와 달리 엘라를 무척이나 따랐다고 합니다.

펠릭스 유스토프공은 러시아의 갑부 집안이었던 유스토프가문의 후계자로 그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성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부인인 이리나는 니콜라이2세의 여동생이었던 크세니아 여대공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는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황실가족 대부분은 체포됩니다. 그중 짜르와 그 가족들은 시베리아로 이송되었고, 다른 황실가족들 역시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붙잡히거나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녀로 모스크바에서 살던 엘라 역시 체포됩니다. 엘라는 다른 황족들과 함께 억류되었고 적군에 의해 다른 여섯명의 황족들과 함께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엘라가 처형당한 다음날 짜르의 가족들 역시 처형당합니다. 짜르 일가의 죽음은 유명해서 그냥 넘어가고, 엘라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의 앞쪽 포스트인 엘라대공비의 죽음과 그 이후 <http://blog.daum.net/elara1020/8036658> 를 참조해주세요.

니콜라이2세와 가족들

이 사건은 헤센 대공가 가족들이 겪은 가장 큰 비극으로 인식됩니다. 영국에 있던 엘라와 알릭스의 큰언니 빅토리아는 짜르 가족이 죽은지 얼마 안되어서 짜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엘라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날때쯤에야 겨우 죽음을 확인했으며 묘를 찾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짜르가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죠. 빅토리아는 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겉으로 괜찮은척 했지만 동생들의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하루에 몇시간씩 고된 정원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이야기를 입밖으로 꺼내는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후 엘라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던 동생 에른스트 루드비히를 만나는것조차 꺼릴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생을 만난다면, 자기 입으로 동생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라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 빅토리아의 마음속 슬픔으로 남았는데, 빅토리아가 죽어갈때 빅토리아는 엘라와 알릭스, 니키(니콜라이2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빅토리아의 성격상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볼셰비키는 용서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가 죽기전 늘 생각했다는 엘라와 알릭키와 니키

이 문제는 후에 안나 앤더슨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안나 앤더슨이 나타났을때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때 헤센 대공가는 안나 앤더슨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빅토리아는 안나 앤더슨의 귀가 아나스타샤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나스타샤의 귀는 자신의 숙부와 똑같이 생겼었기에 늘 신기해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의 다른 동생인 이레네는 아들이 안나 앤더슨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으며, 결국 이레네의 집안에서는 안나 앤더슨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른스트 루드비히 역시 안나 앤더슨이 조카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다른 많은 황실 가족들 역시 안나 앤더슨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당시 가문의 수장이었던 황태후는 안나 앤더슨에 대해 들으려하지

조차 않았습니다. 황태후는 아들이 죽지 않았을것이라 굳게 믿었고, 이때문에 "학살"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나 앤더슨의 존재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시키는 일이었죠. 이때문에 황태후는 안나 앤더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앤더슨

"아나스타샤"의 사칭자

오래도록 이어진 소송에서 헤센 대공가 사람들은 일관되게 그녀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자료출처

1. 위키피디어

2. 다음 카페 "로얄 하우스(<http://cafe.daum.net/yulia0818>)"의 율리아님의 글 "리틀 마더 오브 러시아"(러시아의 마지막 황태후인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태후의 전기)

3. Alice Princess Andrew of Greece (2001)

4. 어디선가 읽었던 빅토리아 멜리타에 대한 글 (아마 Grandmother of Europe이던가 그 사이트였는것 같은데 주소가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그림출처

위키피디어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엘리스 대공비이후의 헤센 대공가 이야기를 읽으면 가슴아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엘리스 대공비의 자녀들은 이 끔찍한 비극에 희생이 되거나 늘 비극을 겪습니다.

특히 장수했던 큰딸 빅토리아와 셋째딸 이레네는 수많은 가문의 비극을 목격합니다.

그중 빅토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기때문에 그녀가 비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옵니다.

빅토리아는 무척이나 괜찮은척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말할수 없었죠.

빅토리아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러시아 동생들의 죽음이었을겁니다. 엘라는 빅토리아와 가장 친한 자매였고, 빅토리아는 막내였던 알릭스를 어머니처럼 돌 봐야했으니까요.

아마 이레네 역시 빅토리아와 비슷했을것 같습니다. 1차대전이후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2차대전때도 매우 힘든삶을 살았죠.

하지만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자신의 인생중 가장 큰 비극이 되었을수도 있는 사건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슬픈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헤센 대공가의 비극...5.1937년 비행기 추락사고

헤센 대공령은 1차대전후 공화국이 되었다. 헤센의 대공이었던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전쟁을 싫어했고 제일 친했던 여동생인 알릭스가 러시아 황후였음에도 의무로 독일 군에 참가했다. 1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독일의 수많은 공국들이 공화국이 되었다. 헤센 대공령의 사람들 역시 헤센이 공화국이 되길 바랐으며, 통치군주였던 에른스트 루드비히를 몰아내기 위해 왕궁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대공을 몰아내자!공화국 만세!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헤센의 대공 에른스트 루드비히

그는 졸름스-호엔졸름스-리히의 엘레오노레와 재혼했는데 그녀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메리 왕비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여성과 만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공의 측근 신하들은 대공에게 서둘러 몸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에른스트 루드비히와 그의 아내인 엘레오노레 대공비는 자신들이 러시아 황실가족들처럼 사람들의 손에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을 피하라는 조언을 거부하고 왕궁에 남았다.

대공은 왕좌의 방에서 왕좌에 앉아있었고, 대공비는 그 곁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때쯤 대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곳에서 헤센의 군복을 볼수 없다는 것이 유감ियो. 그대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궁정에 유흥거리는 없지만, 내 아내가 차정도는 내줄수 있소." 대공의 말에 헤센 사람들은 행동을 멈추었으며, 조용히 돌아갔다. 비록 공화국이 되길 원했지만, 헤센과 다름슈타트 사람들은 늘 대공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헤센대공령은 공화국이 되었으며,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정치와 군에서 손을 뗐다. 그는 이 둘을 싫어했기에 정

치에서 손을 뗀후 자신이 좋아한 예술과 과학기술의 후원자로 남았고, 다름슈타트 사람들의 사랑을 다시 얻었다.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예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답니다.^^*)



엘레오노레 대공비

그녀에 대해서 메리 왕비는 "못생겼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련되게 옷을 입었으며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었고 에른스트 루드비히를 잘 이해했다 라고 언급합니다.

1937년 10월 에른스트 루드비히는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10월에 열리기로 되어있었던 대공의 둘째아들 루드비히의 결혼식이 11월로 연기되었다. 루드비히는 영국의 게디스 남작의 딸인 마거릿 게디스와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이때문에 헤센 대공가의 남은 가족들은 영국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대공의 장남이었던 게오르그 도나투스(돈)는 그리스의 케킬리아(세실)과 결혼했다. 세실의 어머니는 바텐베르크의 앨리스 였으며 외할머니는 돈의 고모였던 헤센의 빅토리아(밀포드헤이븐 후작부인 빅토리아 마운트배튼)이었다. 이때문에 세실은 외가가 있는 영국에 가는것을 좋아했으며, 이번에는 기쁜일로 외가 친척들을 만나는것에 들떠 있었다.



게오르크 도나투스 와 세실

....게오르크 도나투스 사진은 세실과 결혼사진에서 자른사진인거 같은데....

왜 결혼사진은 안 올라와있냐구요...

..참고로 돈은 아버지 많이 닮았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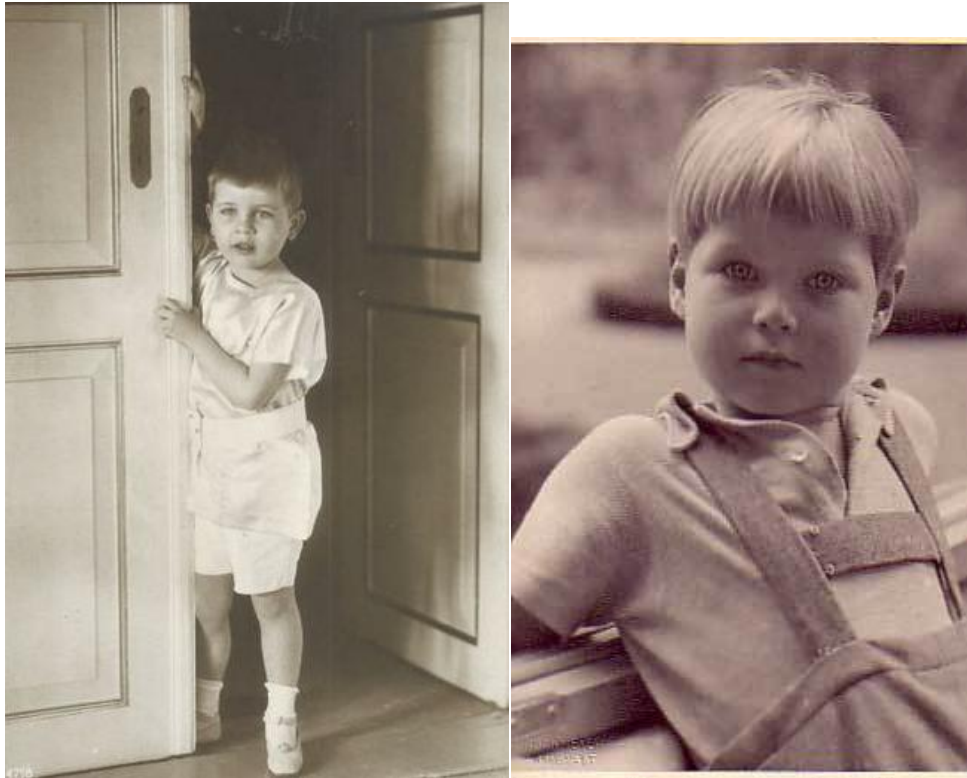
결혼식 전날인 1937년 11월 16일 아침 헤센 대공가 사람들은 루드비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난다. 엘레오노레 대공비와 게오르크 도나투스와 세실 그리고 둘의 자녀인 루드비히와 알렉산더가 갔다. 막내였던 요한나는 너무 어렸기에 집에 남겨졌으며, 이때 세실은 임신중이었다. 그리고 대공가 외에도 신랑의 베스트맨이었던 아이젠바흐 남작 요아힘 라이데젤과 아이들의 보모였던 리나 헤나도 동행했다. 이들은 자베나사의 비행기를 타고 갔으며, 이 비행기의 조종은 자베나 사의 노련한 조종사중 한명이 맡았다. 조종사 외에도 세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독일에서 출발해서 북해근처까지 갈때는 비행이 매우 순조로웠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벨기에 오스텐트 공항 근처에서 추락하고 만다.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오스텐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한다. 공항에서는 이시도에 대해서 너무 늦게 응답했으며(그냥 통과하라는 신호였다) 결국 비행기는 근처 공장의 굴뚝에 날개가 충돌했고, 이후 엔진이 떨어져나가면서 추락했다. 11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과 조사가 오갔다. 왜 노련한 기장이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는가 공항에서는 왜 대처가 늦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그중 한가지 주장은 세실이 조산을 했다는 주장이다. 세실의 조산은 기장이 어쩔수 없이 급박하게 착륙을 시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임신중이었던 세실의 아이는 비행기 잔해속에서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엘리스 대공비의 막내딸이자, 게오르크 도나투스의 고모가 되는 마리 대공녀가 죽은지 59주년 되

는 날이었다.



게오르그 도나투스 and 세실의 두 아들
루드비히와 알렉산더

영국에 있던 루드비히는 결혼식 전날 가족을 모두 잃었다. 그에게는 집에 남겨졌기에 살았던 조카인 요한나 밖에 남아있지 않았던것이다. 루드비히와 마거릿은 다음날 서둘러 결혼한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벨기에로 갔다. 이날 마거릿은 신부의 흰색 웨딩드레스 대신 상복을 입고 결혼했다. 그리고 둘의 신혼 여행은 가족들의 관을 가지고 다름슈타트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다름슈타트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공의 장례식이 끝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대공가족의 관 다섯개가 다시 거리를 지나게 된것이였다. 역시 대공가의 친척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 후에 필립공은 학교에서 누나의 소식을 들었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세실의 외할머니이자 게오르그 도나투스의 고모였던 빅토리아 역시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는 후에 막내 외손녀 조피의 남편이 비행기 사고 사망했을때도 이때 일을 이야기했다. 세실의 부모였던 안드레아스 왕자와 엘리스 왕자비 역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둘은 이 사고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정신적 문제로 아팠던 엘리스 왕자비는 딸의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운을 얻었다. 그녀는 세실이 결혼할때쯤부터 가족을 떠나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은 그녀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다. 반면 안드레아스 왕자는 세실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실은 왕자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으며, 세실 역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를 매우 따랐다. (전선에 나가있어서 오래도록 못만나다가 아테네에선가 만났을때 어린 세실은 배멀미로 축 쳐져있다가 아버지를 보는순간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딸이었으니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안드레아스 왕자는 후에 장모인

빅토리아에게 쓴 편지에서 "시간이 날수록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했다.

대공가의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는데, 세실의 자매들과 그 남편들 모두가 왔으며, 세실의 부모인 안드레아스 왕자와 앨리스 왕자비, 세실의 남동생이었던 필리포스 왕자(필립공)역시 왔다.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인것이 거의 10여 년만이었기때문에 세실의 큰언니였던 마르가레타는 "세실이 죽어서 가족을 다 모이게 해줬다"라면서 슬퍼했다고 한다.



앨리스 왕자비

바텐베르크의 공녀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왕자비

이건 1920년대 참고로 아줌마처럼 그려진 초상화는 1910년대--;;;;

앨리스는 아팠지만, 딸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결에 있어야한다는 의지로 병을 극복했습니다.

앨리스의 병은 아마도 망명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비롯된 병인듯한데, 뭐 프로이트가 내린 병명은 엄청길던데 대충 편집증 비슷한 병..이라고 정의하더이다.--;;

이제 가문을 계승하게 된 루드비히는 고아가 되어버린 형의 딸 요한나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었죠.

자료출처

1.Alice:Princess Andrew of Greece (2001, Hugo Vickers)

2.위키 피디어

그림출처

1.위키 미디어 커먼스

2.위키 피디어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요한나의 죽음이군요.

이글로 헤센 대공가의 비극 이야기는 끝입니다. 더이상 헤센 대공가의 남성 직계후손은 없거든요.(마운트배튼가 제외) 그리고 번외편으로 루이스 마운트배튼경(버마의 마운트배튼 백작)의 죽음을 다룹니다. 바텐베르크 가문도 헤센대공가의 방계가문이니깐요.

헤센 대공가의 비극...6. 요한나 대공녀의 죽음

요한나가 부모인 게오르그 도나투스과 세실을 잃은것은 겨우 태어난지 1년이 조금 지났을때였다. 온가족을 잃은 비행기 사고에서 요한나가 무사할수 있었던것은 영국까지 데려가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다.

요한나의 숙부였던 루드비히 공은 고아가 된 조카를 입양했고 부인인 마르가레타 공비와 함께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아이는 양부모의 사랑속에 밝게 성장해갔다.

하지만 곧 슬픈일이 일어난다. 부모가 죽은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요한나 역시 부모 곁으로 간것이었다.

1939년 요한나는 독감에 걸렸고, 이후 수막염에 걸린다. 아이는 심하게 아팠는데, 6월6일 요한나의 외할머니인 앨리스 왕자비는 프랑스에서 외손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자비가 서둘러 요한나에게 갔을때 아이는 혼수 상태였고, 의사들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요한나는 뇌에 염증으로 고통받았지만, 튼튼한 심장덕분에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39년 6월 24일 요한나는 사망했다.

외손녀의 죽음에 대해 앨리스 왕자비는 아들인 필리포스 왕자(필립공)에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곱슬머리 금발의 아이가 사랑스럽게 잠든 모습은 우리가 본 광경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다. 이것은 내게는 세실의 어렸을때와 너무나 흡사해보였고, 나는 내 아이를 두번 잃는 느낌이었단다. 나는 네 아버지께서 멀리 떠나있어서 이 광경을 볼수 없었던것에 안도한단다...

요한나는 로젠회회에 묻힌 부모 곁에 묻혔다.

<http://en.wikipedia.org/wiki/File:Princessjohana.jpg>

요한나

...사진이 저작권이 걸려있네요..ㅠ.ㅠ

전 요한나 사진을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양부모였던 루와 페그가 많이 사랑했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쥬.

헤센 대공가의 직계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루드비히밖에 없었다. 루드비히의 사촌들인 바텐베르크 가문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독일 타이틀을 버렸으며, 영국 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루드비히와 마르가레타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헤센대공가의 후계자가 되는 루드비히
그는 헤센 대공가의 직계로 마지막 후손입니다.

2차대전이 일어나자 헤센 역시 다른 독일 지방들처럼 폭격을 당했다. 루드비히(루)와 마르가레타(페그)는 부모와 조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친 영국파였다. 그들은 전쟁기간동안 스위스에 머물렀으며, 미군이 헤센으로 들어가자 다름슈타트로 돌아갔다.

전쟁기간동안 다름슈타트는 폐허가 되었고, 대공가의 수많은 저택들은 잿더미가 되었다. 메리 왕비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르니가 그렇게나 꾸렸던곳이 사라졌단다."라고 언급하면서 섬세하지 못한 미국 공군을 탓했다. 루와 페그는 다름슈타트 근처에 있던 가문의 사냥터에 있는 집인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에 머물면서 난민이 된 친척들과 친구들, 옛친하들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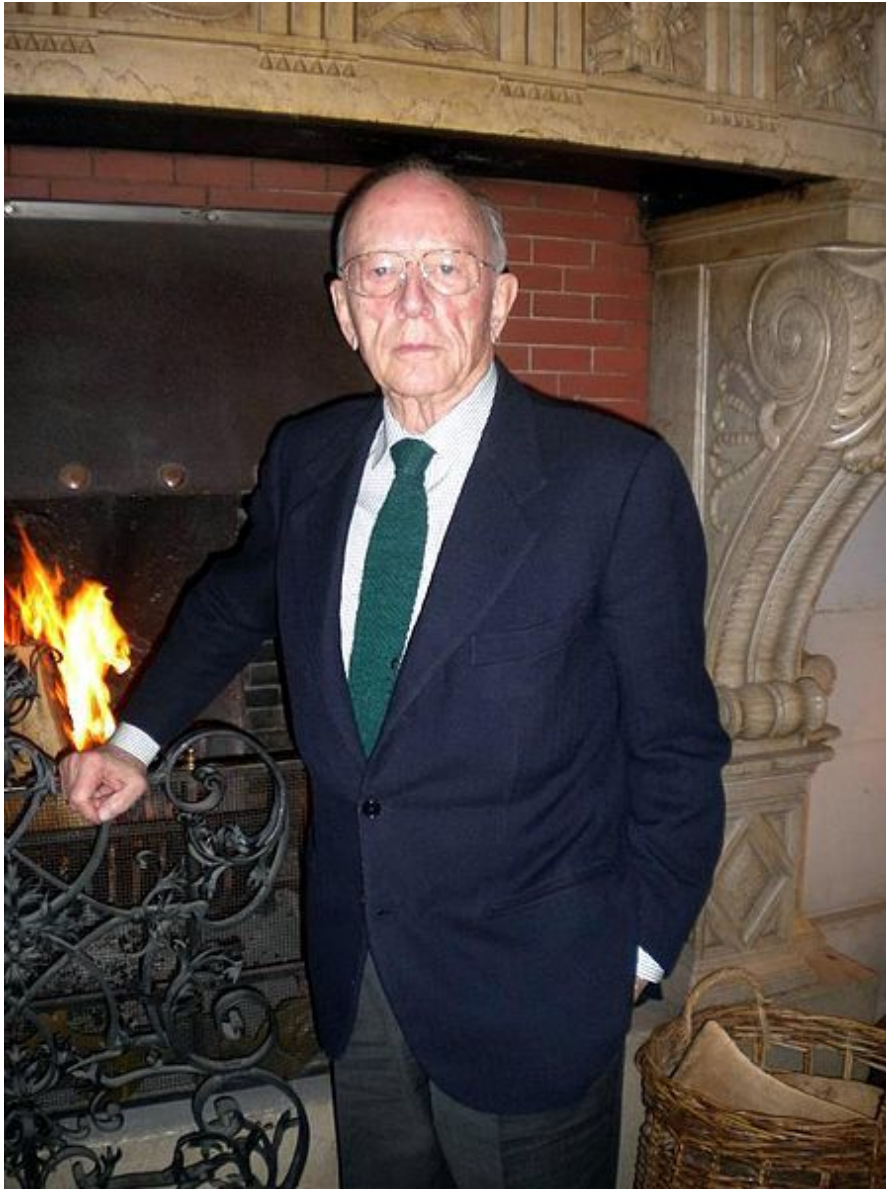
루의 형수 세실의 동생이자 루의 오촌 조카였던 그리스의 소피아 공주는 헤센-카셀의 공비였다. 미군이 소피와 아이

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크론베르크 성에서 나가라고 했을때 소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곳이 막막했다. 그녀는 결국 오촌이었던 루와 페그의 곁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소피아는 전쟁중 남편을 잃었지만, 혼자 몸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 다섯명과 시아주버니의 아이들 네명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름슈타트로 가는 길이 위험할까봐 아이들을 짚더미에 숨겨서 가야만했다.

루와 페그는 소피아와 아이들을 환영했고 함께 머물렀다. 이때 소피아와 페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 그리고 루와 페그는 부모없이 숙모의 손에 맡겨졌던 헤센-카셀가문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소피아의 시아주버니였던 헤센-카셀의 필리프는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전범으로 몰렸다. 헤센-카셀가는 대표적인 친 나치였으며 필리프와 소피아의 남편 크리스토프는 SS친위대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이탈리아의 마팔다 공주는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발을 빼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게슈타포에 의해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연합군의 폭격때 상처를 입고 사망했다. 하지만 공주의 죽음은 전쟁이 끝난후에야 알려지게 된다.

어머니를 잃었으며, 아버지 역시 전후 전범으로 2년동안이나 갇혀있었기에, 아이들을 돌본 이들은 루와 페그였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과 가까워진 둘은 결국 필리프의 장남이자 후계자가 될 모리츠를 자신의 후계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헤센의 란트그라프 모리츠
크론베르크 성에서

결국 루가 죽은후 헤센 대공의 직계는 끊어졌으며, 이후 가계는 헤센-카셀의 모리츠가 잇게 된다.

13세기 성립된 헤센의 란트그라프 가문은 16세기 네개의 분가로 나뉘었고 이중 두개의 분가인 헤센-카셀과 헤센-다름슈타트만이 명백을 이어갔었다. 그리고 루에서 헤센-다름슈타트 분가가 단절되고 이를 헤센-카셀가의 후계자가 이어받게 되면서 현재 모리츠가 헤센 가문 전체의 수장으로 헤센의 란트그라프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결국 이분이 솔로스 볼프스가르텐을 소유하고 계신다죠.흑...일년에 삼일 개방하는 볼프스가르텐...ㅠ.ㅠ)

자료출처

1.Alice:Princess Andrew of Greece (2001,Hugo Vickers)

2.위키피디아

3. 텔레그래프의 기사 HRH Princess George of Hanover

<http://www.telegraph.co.uk/news/obituaries/1507978/HRH-Prince-George-of-Hanover.html>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유명한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에 대한 폭탄테러 역시 다루어볼까합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은 원래 바텐베르크의 루이스 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헤센 대공가의 방계가문이었던 바텐베르크 가문 출신이죠.

바텐베르크 가문은 헤센의 알렉산더가 러시아 귀족이었던 율리아 폰 후케와 귀천상혼하면서 생긴 가문입니다. 알렉산더와 바텐베르크 공비의 후손들이었던 바텐베르크 가문 사람들 중에는 유럽의 여러 왕가 출신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이스경의 아버지이자 바텐베르크 공비의 장남이었던 루드비히 역시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이자 자신의 오촌 조카인 헤센의 빅토리아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루드비히의 동생인 하인리히 역시 빅토리아 여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영국에 자리 잡았는데, 1차대전이 일어나면서 반 독일감정이 심해지자 가문 전체는 성을 바꾸고, 독일 왕족 타이틀을 버렸습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은 이 루드비히와 빅토리아의 둘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자랑하기 좋아했던 아버지 성격 + 수다스러웠던 어머니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루드비히는 자랑하기는 좋아했지만 말로 표현하는것이 아니라 훈장을 달고, 제복을 입는등의 행동으로 보여줬으며, 빅토리아는 소탈하고 지위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수다스러웠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에게 shut up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되었다고 합니다.^^*)

헤센 대공가의 비극번외편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의 죽음

버마의 마운트배튼 백작인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은 영국 왕실과 밀접한 인물이었으며, 영국 해군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가문은 아버지 루드비히가 해군에 투신한 이래 늘 해군으로 복무했으며, 그의 지위에 이르러서는 해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뿐 아니라 인도의 마지막 총독으로 인도의 독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의 부인인 에드워나 에셀리는 막대한 재산의 상속녀였고, 이런 재산은 그와 그의 부인이 가족일에 많은 신경을 쓸수있게 해주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은 조카인 그리스의 필리포스 왕자와의 관계로 유명했다. 형인 조지가 죽은후 그는 부모의 보살핌없이 떠돌아 다니던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리고 조카의 앞날을 닦아줘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의 계획은 매우 거창한것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혈연지연을 총 동원했다.잘생긴 조카를 영국의 왕위계승자인 공주와 결혼시킨것이였다. 그의 작업은 광범위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왕가도 동참했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은 영국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 잘생긴 외모에 전쟁중 영웅이었으며(그의 함정이었던 HMS Kelly는 매우 불운한 배였다.어쨌든 늘 부서졌던 이배에 대해 선원들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격침당하면서 선원의 1/3이 사망했고 루이스 경 역시 죽을뻔했지만. 선원들 처럼 배가 침몰한것에 크게 슬퍼했다. 그후 이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였다.-잠시 자료찾다가 뒤진 밀리터리포럼에서 이 배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친척들이 글을 썼는데 이 배에 있었던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

...헐...--;;이제까지 필립공을 보면서 아버지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외가쪽도 많이 닮았군요

영국 여왕의 부군의 외삼촌이었으며, 인도 총독이었고 해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이 사람은 곧 비극의 표적이 된다.

1970년대 IRA는 영국의 여러곳에서 북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테러를 감행하고 있었다. 루이스 마운트배튼은 북아일랜드 해안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있었다. 그는 늘 이곳에서 손님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다.

1979년 8월 29일 루이스 경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친척인 손님을 태우고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이때 손님들은 루이스 경의 큰딸 가족들이었다. 큰딸인 패트리샤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두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휴가를 즐기러 왔다. 여기에 이 배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소년까지 모두 일곱명이 이 보트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보트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다. 루이스경과 외손자 한명, 패트리샤의 시어머니와 선원이었던 소년은 사망했다. 패트리샤의 다른 아들은 큰 부상을 입었으며, 패트리샤와 남편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에 대한 IRA의 테러가 일어난날 IRA는 다른 영국군 역시 공격했으며 이 사건을 Warrenpoint ambush 라고 부른다.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헤센대공가의 비극

블로그

엘의 주절주절

<http://blog.daum.net/elara1020>

저자

엘

발행일

2011.02.07 16:43:55

 **블로그**